

建築에서 場所의 理論과 構成體系 要素의 分析 研究

An Analytic Study on the Theory of Place and System of Compositional Elements in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

이일형* Lee, Yil-Hyung

Abstract

The theory of Place is based on the relations of human being, environment and architecture in the view of the existentialism and phenomenology. A place has two respects, the one is Natural place as landscape and the other is Man-made place as city, public building, private house.

These properties of place are appeared through axis, directions, boundaries, centers, enclosures that are basic elements in architecture. Therefore these elements embody sense of place as orientation, identification, identity, imageability, stabilitas loci, heirarchy. And these sensually compositional elements of place concretize district, landmark, node, path, edge that ceate a setting-into-work and place in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1. 서론

최근의 사회,문화이론에서 나타나는 미래학자들의 이론적 추세는 대략 두가지로 분류가 된다. 하나는 경제,산업면의 정보,기술추구의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문제,인간본질의 회귀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 경향이다. 前者는 첨단산업의 세계적 경쟁에 대한 적자생존식의 추구이며, 後者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와 에너지 및 자원의 위기 그리고 인간성의 훼손 및 인구증가문제 등에 대한 경고이다. 인간은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여 산업,경제활동을 추구하며, 이에 따라 자원, 에너지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을 야기시켰으며, 이것은 인구증가 문제 때문에 더욱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드러났으며, 여기서 건축에서의 방향 재고에 대한 변환점을 맞게 되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과도기적 건축은 다양한 방법론적 모색을 통해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비한 점이 있어 그에 대한 방향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建築的 課題를 본질적으로 고찰해 보고 그 이론적 체계를 재정립하며, 건축 및 실내디자인의 개념을 새롭게 조명하여 그 설계 및 디자인에 적용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實存哲學을 바탕으로 現象學과 心理學에 근거를 두는 場所論의 이론적 체계를 살펴보고 그 過程的 構成要素를 고찰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건축과제의 모색과 실내디자인에서의 이론적인 방법론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場所의 意味에 대해 그것의 現象,構造,精神을 살펴보고, 場所의 範疇에서 크게 自然的 場所(景觀)와 人工的 場所(住宅,公共建築,都市)를 분류하며 그리고 장소형성에 관념적인 배경을 이루는 제 학문적 요인을 간략하게 고찰해 본 후 場所 構成體系로서의 성분요소를 過程的 段階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2. 場所의 意味

2-1. 場所의 現象

우리가 사는 매일의 생활상은 사람들,동물들, 수많은 사물들 및 변화하는 계절로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떤 현상이 다른 대상에 대하여 '環境'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¹⁾.

環境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는 場所인데, 그것은 행위와 사건이 일어나는데(Take place) 흔히 쓰이는 말이다. 그것은 地域性(Locality)과 연관되며 材料,形象,質感 그리고 色相 등의 구체적인 사물로 이루어진 總體性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은 '環境의 特性'을 결정하는 것인데, 場所의 本質은 이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場所는 '特性(Character)' 또는 '霧圍氣(Atmosphere)'로서 부여된다.

도시와 주택은 다수의 특별한 場所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적 요소들은 인간이 부여받은 주요한 합성물임이 명백한데 사실은 場所란 대개 지질학적인 용어로 정의되어지며 位置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 정희원, 홍익대학교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1) C.N.Schulz,1980,Genius Loci,New York,Rizzoli. p181

으로 자연적 형태는 포괄적인 총체성으로 확장되는데 지방적인 상황에 따라 '場所'는 특수한 正體性(Identification)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景觀(Landscape)은 自然的 場所를 분명하게 해줌으로써 보존될 수 있다. 環境의 人工的인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주택이나 농장으로부터 마을이나 도시까지 각기 다른 규모의 '定住(Settlement)'이며 2차원적으로는 자연을 '文化的 景觀'으로 변형시키는 여러가지의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저들을 연결시켜주는 '通路(Path)'가 있다. 定住는 환경에 조직적으로 관련이 되면 환경적 특성이 구체화되고 설명적인 곳에서 중심으로 작용하게 됨을 암시하는 것이다.

2-2. 場所의 構造

場所의 構造란 '景觀'과 '定住'에 의해서 묘사되며 '空間'과 '特性'의 범주에 의해서 분석되어야만 하는데, '空間'이 場所를 만드는 요소들을 3차원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特性'은 어떤 장소의 가장 포괄적인 자질인 일반적인 '靄靄氣'를 의미한다. 체험의 주체가 자신의 내부에 심상적 표상으로서 장소를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場所는 그 형성과정에 작용하는 정신적 활동으로 인해서 일종의 논리적 질서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논리적 질서에는 그 장소의 형성자가 부여한 다양한 질서들이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다. 이러한 질서는 다음과 같은 범주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²⁾

- 1)空間的 秩序에서 각 장소들간의 관계를 규정짓는다. 이러한 질서는 비유클리트적이다.
- 2)場所에 부여되어 있는 秩序는 時節的인 秩序이다.
- 3)각 場所들에는 의미들이 부여됨으로써 질서들이 존재하게 된다.
- 4)각 場所에는 체험의 즉각적인 정서적 활동에 의해 질서가 부과된다.

2-3. 場所의 精神

인간의 獨自性(Identity)은 場所의 獨自性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安全性(Stabilitas Loci)은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사항이다. 우리가 오늘날 인간적인 疎가 상당히 흔하다는 것에 믿음만한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적 환경이 부여하는 定位와 親密感의 가능성이 희박한 데에 기인한다. 場所의 獨自性은 항상성이나 변화에 대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고대로부터 '土地靈(Genius Loci)'³⁾ 또는 '場所의 精神(Spirit of Place)'이 확고한 실재로서 인식되어온 이래로 인간은 일상의 생활에서 직면하고 타협하여 오게되었다. 土地靈은 位置나 空間的 形象 그리고 특징적인 分節로서 명백하게 요구된다. 건축물을 통해서 본 인공적인 장소는 각개의 土地靈을 지니게 되면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토지령은 視覺化, 補完化, 象徵化 또는 集積化(Gathering)된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 地堯的인 建築에서도 인공적인 토지령은 자연적인 장소에 밀접하게 일치되어야 하며, 보다 포괄적인 도시 건축에서도 그러하다. 장소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意味'와 '構造'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어떠한 대상에 대해 '意味'는 다른 대상에 대한 그것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즉 그것은 대상이 '集積'하는 것으로서 구성된다. 하나의 사물은 그것이 集積하는 것에 힘입고 있으며, 대신에 '構造'는 체계적 관계의 형태적 성질을 의미한다.

3. 場所의 範疇

3-1. 自然的 場所

自然的 場所란 대륙이나 나라들로부터 개개 나무의 밑에 있는 그늘진 지역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環境的 段階를 의미한다. 이러한 모든 장소는 하늘과 땅의 구체적인 설질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환경적 단계와 관련되어 일상생활에서 포괄적이며 안정된 성질을 지닌 것이 景觀이다. 造景의 분명한 특징은 확장인데 그것의 특징과 공간적 성질은

그것이 어떻게 뻗어나가 확장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景觀(Landscape)은 하나의 단순한 현상의 흐름이 아니라 그것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의미들을 구체화하며, 이것들은 居住의 근본을 형성해왔다. 景觀의 특성은 자연적 장소의 구조 즉 結節點, 通路, 領域에 대한 고립된 언덕과 산 또는 경계지어진 분지와 같으며, '中心화된 空間'같은 요소들 즉 계곡, 강, 그리고 岬과 같은 공간에 방향을 잡아주는 요소들, 평야나 언덕의 군집을 상대적으로 균등한 확장된 공간적 유형으로서 한정짓는 요소들에 관해서 묘사되어질 수 있다. 景觀은 일반적으로 實存的 空間의 윤곽이 '그림(Figure)'로서 나타나게 되는 '배경(Ground)'의 단계였다. 경관은 우리가 갖는 '環境像'의 연속적 배경을 형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宇宙論적 이미지를 구체화시켰으며 도시는 宇宙로 의도되었다. 田園都市의 일반적 이미지는 본래 경관정원에 의해 나타난 자연 및 자연적 삶으로의 복귀에서 유래한다. 田園은 살아 있는 유기적인 총체로서 구체화되는 장소이다.⁴⁾ 실제로 인간이 생각하는 天國의 이미지는 항상 圍繞感있는 庭園이다. 文化的인 景觀은 '耕作'을 근거로 하여 인간이 이해하는 자연적인 환경을 응결시키는 한정된 場所, 通路, 領域들을 포함한다.

自然的 場所의 現象은 이러한 신화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1)인간이 자연에 대해 안다는 것은 장소의 체계로서의 공간개념의 기원을 뜻한다. 의미있는 장소의 체계만이 진실로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2)연속적인 사건들의 흐름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우주론적인 질서를 추출해 내는데 있다. 그러한 질서는 대개 太陽軌道에 근거를 두며 변화하지 않는 南北方向으로 인간의 定位에 대한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자연적인 장소의 특성을 定義(限定)해) 나가는데 있어 자연적 특성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과 관련시키는데 있다.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것을 神人(神)의 神으로서 그들을 구체화시켰다. 4)빛(光)이란 일시적인 자연적 리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연적인 장소를 구별시켜주는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인 리듬으로부터 구별되어질 수 있다. 5)時間이란 항상성과 변화의 차원으로서 공간과 특성을 살아 움직이는 실재의 부분으로서 만들며 土地靈으로서의 특정한 장소로서 매순간마다 부여된다.

景觀構造는 일반적인 位相幾何學의 관계에 의하여 성립된다. 自然的 景觀의 構造는 다음과 같다.

- 1)浪漫的(Romantic) 景觀; 원형적인 힘들이 매우 강하게 느껴지는 경관으로서 그것의 스케일은 인간적이거나 전원적이다. 그 예로는 스킨디나비아 북유럽의 삼림 등이 있다.
- 2)宇宙的(Cosmic) 景觀; 개인적인 장소를 포함한다기 보다는 중립적인 대지를 연속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그 예로는 사막, 아라비아의 경관 등이 있다.
- 3)古典的(Classical) 景觀; 명료하고 개별적인 장소들의 의미있는 질서이며, 빛과 투명한 공기는 최대로 조각적인 형상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질 수 있다. 그리스의 경관 등이 그 예에 속한다.
- 4)複合的(Complex) 景觀; 낭만적, 우주적, 고전적 경관은 자연적인 장소들의 원형이다. 실존적인 의미들과 내용을 기본적으로 결정하며 구체적인 상황의 '土地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적절한 범주들이다. 바로크 양식의 정원 및 건축 등이 그 예에 속한다.

3-2. 人工的 場所

環境的 段階의 연속물인 人工的 場所는 3가지 기본방법에 있어서

- 2) 조희철, 1990, 건축적 체험의 본질과 장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6
- 3) 'Genius Loci'란 개념은 로마적 개념이다.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독립적인 존재는 그것의 Genius가 있는데 그것은 守護靈(Guardian spirit)이다. 이 수호령은 나서 죽을때 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사람과 장소에게 생명을 주며 그들의 특성과 본질을 결정한다.
- 4) C.N.Schulz, 1975, Meaning in Western Architectur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Inc., p.360

자연과 관련되어 있다. 1) 인간은 자연적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는 자연을 시각화하며 인간이 획득한 實存的 基盤을 표현하기를 원한다. 2)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서 부족한 것을 보태어서 補完化해야 된다. 3) 인간은 그가 이해하는 자연을 象徴化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人工的인 建築은 자연의 이해에 대한 구체화로서 해석될 수 있으며 事物.秩序.光.時間위에서 묘사되어 질 수 있다. 건축하는 방식이란 우선 자연적인 힘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공적인 장소는 인간이 환경을 이해하는데 대하여 視覺化, 補完化, 象徴化한다. 그것에 더하여 또한 많은 의미를 모기도 하며 이러한 장소는 境界가 있음으로서 존재하기 시작한다. 어떠한 진실된 定住에서든 그것은 集積에 근거를 두며 그것의 기본적인 형태는 농촌.도시의 居住이다. 인공적인 장소의 特性은 '開放'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내측과 외측의 관계는 건축의 매우 필수적인 기본을 구성하는데 장소란 고립되어 있는 은신처로서 될 수 있으며 그것의 의

미는 상징적인 요소들의 존재에 기인한다. 구조적으로 定位와 正體感은 인공적인 장소안에서 경험함을 의미한다.

人工的인 場所의 構造는 다음과 같다. 1) 浪漫的 建築; 다양함과 변화에 의해서 구별된다. 그것은 비합리적이며 주관적인 것에 의하여 이해될 수 있다. 강한 '雰圍氣'에 의해 특징지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은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인 특성에 의해 구별되며 '表現'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의 형태는 조직보다는 '成長'의 결과로 보이며 살아 움직이는 자연의 형태를 닮았는데, 그것의 공간은 기하학적이기보다는 位相學的이다. 그 예로는 아르누보 건축, 알바 알토의 건축 등이 있다. 2) 宇宙的 建築; 균등성이나 절대적인 질서에 의해 구별되어진다. 그것은 종합적 체계로 이해될 수 있으며 각개의 구체적인 상황을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추상적으로 보인다. 宇宙的인 空間은 엄격하게 기하학적이거나 대개 규칙적인 그리드나 직각으로 교차하는 軸들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이집트 건축이 그 예에 속한다. 3) 古典的 建築;

<표 1> 建築構成的 基本要素

	意味	特性	事例
軸	軸(Axis)은 선에 관련하여 조직을 언급하는 것을 표현한다. 축은 공간의 형태요소를 통일시키고 이 여러 요소를 전체로 관련시키는 기하학적인 조직의 선이며, 인간의 현실적인 운동이 어떤 목표에 이르기까지 지나게 되는 선적인 연속체를 의미하는 관념적인 개념으로, 대상 상호간의 개념작용과 관찰자의 운동에 의한 지각작용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1) 構成軸은 기하학적이고 한정된 공간과 양극의 형상이 갖는 좌우대칭적인 중심축을 가리킨다. 2) 進路軸은 목표에 의해 정해진 관찰자의 운동축을 기하학적인 직선으로 파악될 수 있다.	1) 그리스건축에서는 조직하는 방향들과 대칭을 도입하였다. 2) 로마건축에서 축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3) 매너리즘 건축에서 그것은 몹시 요란했으며 어느 곳으로도 인도하지 않았던 반면에, 4) 바로크는 통일되고 복중적인 효과를 이룩하기 위해 축을 이용했다. 5) 현대건축에서 M.Graves은 'Newart Museum Carriage House' 증축공사에서 격자를 여각으로 삽입시켰으며, J.Stirling은 'Olivetti Training School'에서 축을 굴절시켰다. 이는 축상에 의해 치환됨으로써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생동감과 변화감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R.Meier는 'Antheneum'에서 축이 중첩되어 전이된 격자를 사용했다.
方向	方向(Direction)은 특정한 지점으로의 이동을 수반하며, 밀접하게 관련된 지점들로 이루어진 지역들은 그로 인해 구별될 수 있다. 인간에 내재하는 방향추진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을 한 공간안에 위치시켜야 한다. 실존적 공간의 방향성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4가지의 방위(東西南北)가 가장 중요시 되어 왔다.	수직방향은 상승 및 하강을 나타내며, 공간의 신성한 차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수평방향은 인간의 구체적 행동체계를 나타낸다. 어떤 의미로는 모든 수평방향은 동등하며, 무한한 확장의 평면을 구성한다. 내부와 외부사이의 상호작용 역시 그 장소안에서의 방향들의 설정에 기초하고 있다.	1) 이집트나 로마의 교차축(Cardo-Decumanus), 기독교 건축의 교차축처럼 방향성은 인간의 世界內存在의 일반적 속성이다. 2) H.Hertzberger의 'Central Beheer 본사건물'은 강하고 포괄적인 이미지를 갖는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방향 및 정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3) V.Gregotti의 'Cosenza 대학'은 정위와 감각상실의 작용, 익숙함과 놀라움의 작용,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작용 등이 효과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境界	境界(Boundary)에 의해 하나의 장소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건축은 경계영역 내에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구상체로서 발생하는 것이다. 경계는 내부와 외부를 만든다. 각각의 장소는 경계에 의해 뚜렷이 표현된다.	경계영역은 하나의 臨界性(threshold), 즉 어떤 다른 것이 합쳐져 하나로 되어지는 상태의 부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1) 매너리즘 시기에 미켈란젤로의 건축형태는 경계를 이루는 표면들의 처리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에 공간형태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았다.
中心	中心(Center)의 개념을 시각화하는 원형적인 것은 Mal(언덕)과 위요감(高原)인데, 이것들은 흔히 조합하여 나타난다. Schema의 발달은 중심에 대한 관념이 일반적인 조직화의 수단으로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의 주요한 요소는 중심과 통로이다. 광장은 중심으로서 기능을 하며 가로는 통로로서 기능을 한다. 중심은 領域이나 場(Field)을 만들어 낸다.	1) 로마건축에서 중심은 'Mundus' 즉 세계라 불리우는 구덩이에 의해 표현되었다. 2) 바로크 건축의 지배적인 중심은 모든 체계의 공통이며 그것은 그 건축 체계를 의미있게 만든다. 3) 近東과 지중해 국가들의 Court house는 중심화된 평면의 기원이다. 일반적으로 폐쇄를 목적으로 한다.
閉鎖 圍繞	인공적인 장소의 명백한 특징은 圍繞(Enclosure)인데, 그것의 특성이나 공간적 성질은 어떻게 그것이 위요, 폐쇄되었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주택에서의 '울'은 자연과는 다른 영역 즉 공동사회에 시각적 표현을 제공하는 영역을 정의했다. 공간의 폐쇄는 또한 경계를 이루는 표면들과 관련하여 빛, 색채, 재질의 사용을 통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도 있다.	圍繞感은 건축된 경계에 의하여 주위로부터 분리된 명확한 지역을 의미한다. 閉鎖感은 벽체들의 처리에 의존하며, 에워싸는 연속적인 경계를 형성하기 위해 모퉁이에서 벽체들의 결합에 의존한다.	1) 아프리카의 원시건축에서는 대지평면의 단순한 질적 변화에 의해서도 위요감을 만들어 내었다. 2) 로마네스크 시점에서 S.Marco의 주된 공간들은 5개의 반구형 돔으로 명백하게 한정된 단집들의 연속을 형성하는데, 주된 공간들은 완벽한 '이중피막 구조'를 만들어 내면서 Pier들을 관통하는 Aisle들을 동반하고 있다. 3) 바로크 건축의 교회들은 '이중피막 구조'라 정의된 보다 정적인 有心平面이 보편화되었다.

形象性和 분절된 秩序에 의하여 구별되며, 그것의 내용은 感情移入을 요구한다. 고전적인 건축은 구체적인 존재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각각의 요소는 명료한 개별성이다. 그것의 예로는 그리스, 로마의 건축이 있다. 4)複合的 建築; 浪蕩的, 宇宙的, 古典的 건축은 인공적인 장소의 원형들이다. 자연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범주에 그것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어떤 특수한 定住의 토지개념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고딕성당, 바로크의 건축이 그 예에 속한다. 人工的인 場所는 다음과 같은 範疇을 갖는다.

3-2-1. 私的인 場所 - 住宅

주택은 사용자의 생활이나 그것이 세워져 있는 장소에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 주택은 자기세계의 중심에 위치지우려고 하는 관심의 표상인 것이다. 주택은 환경과 바람직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주택을 부지에 조화시키는 방법으로는 대략 4가지가 있다.⁵⁾

1)同化; 구릉지나 수목 등이 부지에 강한 영향을 줄 때는 주택이 지표면과 융합하여 그 일부가 되도록 만들 수 있다. 2)自己主張; 同化와는 반대로 주택이 명쾌하고 힘찬 형태를 가지고 그 주위의 토지에 대해 뚜렷하게 자립하여 세워지는 경우이다. 3)對面; 집의 정면을 강조하는 건물로서, 도로, 광장 혹은 특수한 경치에 대면하고 있는 경우이다. 부지의 특색에 따라 집의 정면을 특수한 양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4)包圍; 집을 Open core의 주위로 방이 둘러싸는 것과 같은 종류이다. 집을 만드는 요소가 토지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둘러싸서 옥외에 개인적인 영역을 만들어 낸다. C. Moore는 주택이 대략 7가지의 방법이나 그 짜맞춤으로 구성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방을 연결한다. ②방을 한군데로 모은다. ③核(Core)을 주위로 방을 배치한다. ④방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다. ⑤1개의 방을 두드러지게 하는 경우 그때 발생하는 각기 다른 2가지 패턴을 첨가한다. ⑥가운데에 큰 방을 설치한다. ⑦큰방을 둘러싼다.

3-2-2. 公的인 場所 - 公共建築

公的인 場所는 공통된 이해를 표현하며 이러한 것이 발현되도록 강력한 이미지로서 선다. 랜드마크처럼 그것들은 인간의 定位를 쉽게 한다. 공공시설이 세계의 보편적인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때 그것은 공간과 형태가 단순히 기능적인 적용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의 결과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각화된 것은 실존적 공간성의 기본 구조들로서 이는 中心, 方向, 領域 등의 범주들로 규정되며 또한 솟아오름, 서있음, 뻗어나감, 열림, 닫힘 등의 여러 양태를 지니고 있다. 또한 공공건축물은 항상 쉽게 인지되고 식별될 수 있는 명확한 이미지를 통해 특징지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열주랑, 박공, 출입구, 돔, 탑 등의 건조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그 공간적 이미지는 F.D.K.Ching에 따르면 中央集中形, 長軸形, 格子形 등의 내부공간으로 표출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의 발전은 地域主義와 記念性的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며, 주택과 마찬가지로 도시에 주어진 실존적 공간성의 지역적 환경의 이미지가기도 하다. 근대 공공건축물이 그러한 의미를 대부분 상실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이들을 불분명한 이미지보다는 기능, 패턴이나 '表現的'인 구조를 근본으로 하여 구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公的(Public)과 私的(Private)의 의미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3가지 특징은 ①接近性 ②統制機能 ③重要性 등이다.

3-2-3. 集合的인 場所 - 都市

都市的 段階는 인간자신의 활동 즉 인간과 인공환경간의 상호작용이 주로 결정하고 있는 구조이다. 定住地에 대한 동일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景觀과 관련하여 갖는 그림(Figure)으로서의 특징에 근거한 것이며 분산된 집중화는 기본적인 環境構造를 나타낸다. 어떠한 組織化도 모두 接近性, 連續性, 閉合性이라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그 결과 요소들의 집합은 群集, 列, 圓環 3개의 조합중 그 어느 것을 형성하는 질서를 갖고 있음이 증명된다. 예를 들어 유럽에는 群狀聚落, 線狀聚落, 圓形聚落이라는 3개의 기본형이 있다. 都市의 기본요소는 地域, 街路, 廣場인데 地域이란 群 혹은 그룹이며, 街路란 기본적인 線狀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지역보다도 한층 이미지를 갖기 쉬운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廣場이란 명확하게 구별된 장소이며 폐합적인 것이다. 또한 도시의 구성요소로서 閉合性和 接近性的의 원리는 가장 중요하다. 도시에서 만남과 선택은 定位와 正體性的의 일반적 기능과 관련되어질 수 있다. 도시의 공간형태에 일반적인 5가지의 실행적도로는 ①生命力 ②感覺 ③適合性 ④接近性 ⑤調節性 ⑥效率性 ⑦公正性 등이 있다.⁶⁾

4. 場所의 觀念的 背景과 建築的 構成體系 要素

일반적으로 건축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居住하여 살 수 있도록 즉 공간과 시간속에서 하나의 발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거주는 正體性和 定位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⁷⁾

정체성이 사물의 성질을 밝히는 것인 반면, 定位는 그것들의 공간적 상호관계를 말한다. 居住地는 문화의 연속성과 거주자들의 생존을 증진시키고 시간과 공간상에서 연결감을 높여 주며, 접근이 쉽고 분산적이며 다양하고 적응력이 있어 개방적이다. 장소는 거주와 定住를 통하여 인간을 주체로 구현되는 실체이며, 軸, 方向, 境界, 中心, 閉鎖(圍繞)라는 건축구성의 기본요소를 통해, 定位, 正體性, 獨自性, 形象性, 安全性, 位階性이라는 장소형성의 주체적인 감각으로서 領域, 記念物, 結節點, 通路, Edge(테두리) 등의 기본적인 장소를 형성하는 과정을 갖는다. 여기에는 실존철학 및 현상학이라는 관념적 배경이 있으며, 그것을 건축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형태학, 위상학, 유형학 그리고 시각화, 상징화, 보완화라는 이론적 전개과정을 갖는다. 그것의 개략적인 내용 및 의미들은 다음과 같다.

實存哲學(Existentialism)이란 선험적인 존재가 대상으로서 우리의 의식밖에 있다고 하여, 그것을 객관적으로 대상화하려는 자세이다. 그것은 안정된 환경의 이미지를 형성하며, 전체에 통합된 인식으로 건축을 구성하려는 개념이다. 또한 건축에서의 實存的 空間이란 수학적 논리와 데카르트식의 직교좌표계로서가 아니라, 인간과 환경사이에 있는 기본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실존적 공간의 개념은 정위, 정체성이라는 心的 機能들에 일치하며 공간과 특성이라는 보완적인 용어로 나뉘지고, 상호관련된 성격들의 위계로서 이해될 수 있다. 실존적 공간이란 비교적 안정된 지각적 Schema⁸⁾의 체계, 즉 '環境의 이미지'라고 정의된 바 있으며, 수많은 현상의 유사성으로부터 추상화되어진 하나의 일반화이기 때문에 '대상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실존공간이 환경적 이미지를 표시하는 반면에 건축은 이와같은 이미지를 결정하거나 혹은 그로부터 생겨나는 구체적 형태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건축은 실존공간의 구체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空間의 實存的 構造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1) 抽象的 側面; 위상기하학 혹은 기하학적 종류 가운데서 비교하여 본다면 오히려 일반화된 Schema로 구성되어 있다. 2) 具體的 側面; 자연경관, 도시경관, 건축물, 물리적 사물과 같은 '환경적 요소'를 파악하는데 관계하는 것이다. 실존적 공간의 요소들을 조합하고 형식화하는 기본적 Schema는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 나타나는데, 이 제단계가 이루는 位階 가운데에서 가장 포괄

5) C.Moore, 광해선역, 1984, 주택의 장소성, 서울, 국제, p135

6) K.Lynch, 양동양 역, 1986, 공간형태론, 서울, 기문당, p148

7) Walter Biemel, 백승균 역, 1982, 하이데거의 철학이론, 서울, 박영사, p121

8) Schema란 어떤 상황에 대응한 어떤 전형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행해진 정신적 발달과 병행하여 인간의 행위 즉 몇 개의 조각이 군화되어 그 결과 긴밀한 통일체를 이룬다. J.Piaget는 이 과정을 同化와 調節과의 조합으로 설명하며, 適應을 동화와 조절과의 균형으로 결론짓는다. 초기에 조직되는 Schema는 중심, 장소(근접관계), 방향, 통로(연속관계), 지역 그리고 영역(폐합관계)이 성립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적인 단계는 '지리'와 '경관'이며 역으로 위계의 반대 극에 있는 것은 家具라든가 더 작은 器物的 단계이다. 실존적 공간이란 자기중심적이며 불안정한 직접적 定位로서 지각적 공간이라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단계와 구별하고 개인을 '사회적·문화적 전체에 귀속시켜서' 보다 안정한 환경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Piaget가 말한 인간환경계의 상호작용(同化와 調節)에 관하여 가정된 Schema의 개념을 사용하여 그 구조를 발달적으로 설명한다. ①私的인 實存空間; 개인과 그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신적 발전 중에 구성된다. 결과적으로 이미지는 의미심장한 대상들 사이의 3차원적 관계들로 이루어지는 상태로 형성된다. 지각공간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반면에, 그것들을 경험들로 변화시키는 비교적 안정된 구조를 실존공간은 지닌다. ②公的인 實存空間; 많은 수의 사적인 실존공간들에 속하는 가장 안정된 공통의 성질들에 의해 구성된다. 그것은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겪는 문화적 전통의 성격을 지닌다.

現象學(Phenomenology)이란 사물들의 물적 상태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사물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되어 반영하는가를 말하며, 세계의 反影行爲(Mirror-play)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현상학이란 추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에 반하여 '事物로의 復歸'로서 생각되어질 수 있다. 그에 따라 장소의 의미는 그것이 모아들이는 세계로서 구성된다. 어떠한 세계도 상황적임과 동시에 보편적이며 건축은 장소의 정신을 항상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표현해야 한다. 현상학적 태도는 主體와 客體의 통합을 출발점으로 삼으며, 이는 바꿔 말하자면 인간을 世界-內-存在(Being-in-the-world)로 이해함을 의미한다. 보다 더 완전한 현상학적 접근을 위한 단계로는, ① 첫단계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현상을 명료하게 하거나 경관이나 정주사이에 구체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며, ② 두번째 단계로는 땅이나 하늘(수평적이거나 수직적) 그리고 외부나 내부의 범주에 의하여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주들은 공간적인 암시를 지니는데 그래서 공간은 주로 수학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존적인 차원으로서 다시 알려지는 것이다. ③ 세번째의 특별히 중요한 단계는 '특성'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성은 사물은 어떠한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우리가 겪는 매일의 일상생활세계의 구체적인 현상속에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러한 관념적 배경으로부터 실질적인 인간 삶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거주와 정주에 의한다. 居住(Dwelling)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그것은 다른 사람과 사물로부터 여러가지의 가능한 삶을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2) 그것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되어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그것은 자기 자신의 조그만 세계를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자기자신을 뜻한다. 우리는 이러한 양상을 私的, 公的, 集的의 居住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居住라는 말은 이러한 양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조된 場所를 포함한다. 居住地는 확실히 그 둘러싸인 환경과의 관계속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자연환경과 함께 생각되어야 한다. 都市空間, 公共建物, 住宅이 모여 인공적인 集的, 公的, 私的인 居住行爲가 일어나는 전체환경을 구성한다. 이러한 4가지의 居住樣相을 결정하는 실존구조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관점으로서 인간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

定住(Settlement)란 인간이 사는 인공적인 환경에서 의미를 구조화하고 구체화하여 왔다. 定住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이란 어떻게 주변 경관을 集積⁹⁾하느냐 하는 것이다. 자연속에서 정주한다는 것은 장소를 한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定住地는 낯설지 않은 중심으로서 작용하며 인간이 거주하도록 한다. 도시의 정주는 지역적 중심으로서 일반적인 장소의 역할을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적인 초점을 한계짓는 것에 의하여 구별된다.

또한 이러한 삶의 행위를 건축적 실체로 풀어나가는 과정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이론적 도구들이 들어 요구된다. 1) 位相幾何學(Topology)이란 공간의 질서와 관련되어 있으며 간단한 건축작품에서는 '공

간의 조직'으로서 구체화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리나 각도, 면적을 문제삼지 않고 近接, 分離, 繼續, 閉合, 連續이라는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위상기하학적 Schema는 그 발생 초기에는 대상물 그 자체에 결부되어 있다. 가장 초기에 획득된 질서는 근접관계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이렇게 하여 성립된 '집합'은 곧 연속성과 폐합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보다 더 큰 구조화된 전체로 발전한다.¹⁰⁾

2) 形態學(Morphology)이란 形態構成的 방법, 즉 하나의 건축작품에서는 보통 '形態의 分節'¹¹⁾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다. 우리는 형태를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존재 - 서있는 것, 솟아오른 것, 열려있는 것 - 로서 이해한다. 일반적으로 형태학은 바다, 벽, 천장 등 구체적인 구조 즉 공간의 境界를 연구하는 것이다. 3) 類型學(Typology)이란 형상적 질은 일반적 가치를 갖는 형태 즉 전형의 것, 공통의 것을 포함하며, 그것은 거주양상의 발전과 관련된다. 그것은 장소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것의 무한정한 복제가 아니라 의미있는 공통의 정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해 준다.

또한 이러한 체계는 시각화, 보완화, 상징화의 3가지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① 視覺化(Visualization)란 장소를 구체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자연이 제공하는 事物이 적은 위치에서는 '보완화'와 '상징화'에 의해 개선되어야만 한다.¹²⁾ ② 補充化(Complementation)란 사막이나 끝없는 평원과 같이 자연적 중심이 나타나 있지 않을 때는 건축은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補充化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집트 건축은 벽으로 둘러싸인 인공 오아시스(Oasis)이다. 포괄적인 범위의 원형적 형태들, 즉 格子, 通路, 中心, 圍繞 등이 적용되고 있다.¹³⁾ ③ 象徵化(Symbolization)란 경험되어진 의미가 다른 매개물로 다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적 유사성에 의한 또다른 중간물에서의 형세 표현을 의미한다. 과거의 관계적 요소들이나 인용들의 사용은 분명 상징화에 해당된다.¹⁴⁾ 시각화, 보완화 그리고 상징화들은 일반적인 정주의 과정적 측면이며 실존적 용어의 감각에 있어서 거주는 이런 기능들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전술한 과정을 통해서 건축이 실현화되며, 장소가 창조되는 것이다. 건축이 실현되는 과정으로서의 作品化(Setting-into-work)란 중간 대상들을 구체화하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정서적 반응은 다만 성분들 중 하나를 형성한다. 작품화는 두과정을 겪는다. ① 居住의 한 양상을 형태구성과 공간조직의 기본원칙에 의해 유형적 實在로 변환하는 것이다. ② 이 유형을 현재, 이곳이라는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다. 이들 유형학, 위상기하학, 형태학은 시각화, 상징화, 보완화의 과정을 통해 함께 '建築의 言語'를 구성한다.

9) 集積(Gathering)이란 사물들과 다른 의미들이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

10) C.N.Schulz, 이일훈 역, 1991, The concept of dwelling, 서울, 태림문화사, p24

11) 分節(Articulation)이란 부분들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의미있고 일관된 전체로 통합하는 것을 뜻하는데, 건축에서 이것은 공간, 양피, 벽체라는 각 요소가 분리됨으로써 어떠한 건축물이라도 기능적, 상징적으로 결정되는 몇가지 부분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러나 부분은 본래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연속성, 반복(유동성), 상호의존 혹은 상호관입에 의하여 통일되어야 한다.

12) C.N.Schulz, 1980, Genius Loci, New York, Rizzoli, p140

13) C.N.Schulz, 조휘철 역, 1991, Roots of Modern architecture, 서울, 공간예술사, p142

14) C.N.Schulz, 1988, Architecture: Meaning and Place, New York, Rizzoli, p142

< 표 2 > 場所形成의 感覺的 要素

	意 味	特 性
定位	定位(Orientation)는 생물이 외계의 상태에 반응하여 그 몸의 위치,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환경, 시상, 습관 등에 대한 적응, 순응을 나타낸다. 정위는 현상세계 즉 자신에게 세계에 대해 실질적인 행위를 위한 방향 및 위치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위는 '어디인가 있다는 것' 이상의 위치에 대한 의미이다. 그것은 주로 장소, 통로, 영역들이 지닌 특별한 성격과의 동일시를 수반한다. 정위는 사물의 공간적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定位함으로써 설정되는 공간적 관계는 직접적인 상황을 초월하여 있는 것으로, 동서남북의 좌표나 위, 아래의 구별과 같은 보편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위는 상황적임과 동시에 보편적이다. 정위의 중요성은 黃道에서 비롯되는데 기본적인 방향과 그들사이의 관계를 수립하기 때문이다. 즉 4개의 기본적인 방향들, 그것의 중간지점, 교차점,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수직축 등이 그것의 내용이다.
正體性	正體性(Identification)이란 특별한 환경과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 환경을 의미체로서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에게 정체성의 목적은 전체속에서 특별히 의미있는 것을 찾는다는 것이며, 사물의 성질을 밝혀내는 것이다.	정체성은 인간의 신체와 대상의 형태사이의 관계를 구성한다. 모든 자연환경은 기후적, 계절적 변화속에서도 그 정체성이 분위기로 성격화되며, 환경적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정체성은 항상 우리의 일상생활 속의 행동과 관련된다.
獨自性	獨自性(Identity)이란 장소나 사물들의 기능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독자성은 신명하고 독특해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서, 어떤 사람이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를 인지할 수 있거나 회상할 수 있는 성질을 갖는다.	私人的 독자성은 자신과 자신이 친한 조직에 대해 본인의 독자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고, 公的인 독자성은 '그들'과 '우리'사이에 차이점을 세움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독자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形象性	形象性(Imageability)이라는 개념은 선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론상 상상력은 응집력이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위에 대한 느낌을 갖는 것을 도와줌으로서 인식도를 높여주는 것을 말한다. 형상성은 환경적 특질을 갖으며, 이것은 型(Shape)이나 색채, 정돈된 배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강력한 구조를 지녔으며, 유용한 환경의 정신적 이미지를 수행시키게 하여준다.	개체성, 구조 그리고 의미는 '이미지'의 상호종속적인 구성요소들이다. 형상성에 대한 이미지의 내용으로는 통로, 테두리, 지구, 결절점, 기념물이다.
安全性	安全性(Stabilitas Loci)이란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사항이며, 일사적인 시간 내에서 상대적으로 갖는 연속성은 장소에 대한 안전성의 결과이다. 안전성은 일정한 양의 실망을 견디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와같은 실망 혹은 단념은 개성의 발달에 근본적이다.	이상적인 居住地는 위험요소들, 독성들, 그리고 질병들이 없거나 조절되며 그것들이 생길 두려움이 적은 곳이다. 또 이상적인 거주지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이다.
位階性	位階性(Hierarchy)이란 일반적으로 여러단계(경관적, 도시적단계, 주거, 器物)로서 하나의 계층적 질서를 형성한다. 즉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나 집단에 비해 형태의 이질성, 크기의 우월성, 색상의 강조, 기능의 중요성, 배치상의 극적인 변화 등의 우월성의 표현기법으로 위계적 질서를 유도할 수 있다. 실존공간은 상호관련된 성격들의 위계로서 이해 될 수 있다.	시각적 공간구조로서의 계층적 질서로는 ①크기 ②형태 ③배치에 의한 위계적 질서가 있다. 위계적 질서를 유도하기 위한 배치기법으로는 ①線形 軸線上的 중단부 배치 ②좌우대칭형의 중심부 배치 ③방사선 축상의 중심부 배치 ④전체구상에서의 상부, 하부, 앞 또는 뒤배치 등이 있다.

< 표 3 > 場所의 基本的인 形成要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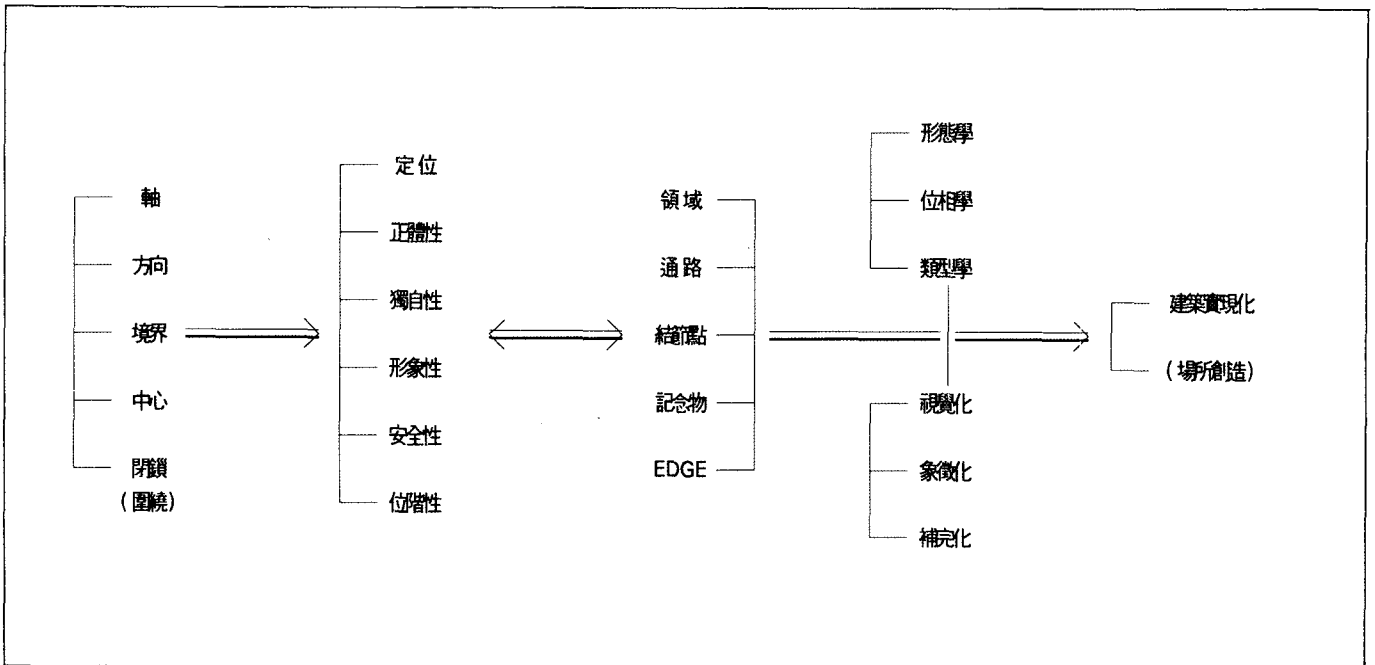
	意 味	特 性
領域	領域(Domain/Territoriality)은 통로가 분할하는 인간의 환경을 여러가지 구역으로 분할한다. 이같이 질적으로 한정된 지역을 영역이라 부르는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폐합성 또는 근접성과 유동성에 의하여 표현된다. 영역은 이미지를 통해 하나의 긴밀한 공간이 되도록 한다. 영역은 안전성과 자국 그리고 개체성을 제공한다. 영역성의 주요 기능들 중의 하나는 집단내에서의 개개인의 위치(지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아개념 즉 개체성을 확인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영역은 비교적 구조화 되어있지 못한 '배경(Ground)'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배경'위에서 장소와 통로가 비교적 명백한 '그림(Figure)'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영역은 인간의 활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장소를 소유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통로와 장소에 의해 환경을 영역으로 구조화하고 제영역으로 분할하여 감을 말하는 것이다. 영역성의 조직으로는 ①小空間; 개인공간 ②中間空間; 본거지 ③大空間; 가정생활범위
記念物	記念物(Landmark)이란 맑은 기능적 층측 이상의 어떤 것을 건축물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기념물(表紙物)은 인위적인 환경내에서 시설이 지닌 실명적이고 중심적인 기능을 가리키고 있다. 기념물은 실존적 공간에서의 중심과 일치하는 수가 많으나 때로는 기념물의 기능이 경계나 방향 이상의 것을 나타낸다.	기념물은 우리들이 자각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하기 보다는, 환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광대하고 복잡한 내부감정이라는 심리적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공시설은 장소를 창출해내는 뚜렷한 이미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結節點	結節點(Node)이란 관찰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점으로서 중요한 축점이며, 그 전형적인 것은 통로의 접합점 또는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는 집중점이다.	결절점으로서의 廣場은 도시구조 가운데서 가장 명확한 요소이다. 그것은 분명히 한계를 갖게된 장소로서 이미지화하기가 가장 용이하며 운동에 대하여 목표를 보여준다.
通路	通路(Path)란 인간의 실존에 관한 기본적인 특질을 나타내며, 중요한 상징의 하나이기도 하다. 통로는 既知의 것과 未知의 것 사이에서 작용하는 긴장물 언젠가 내포하고 있다. 모든 통로는 연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선적인 연속체로 생각된다. 통로는 관찰자가 습관적으로 또는 때때로 지나는, 그렇지 않으면 지날 가능성이 있는 경로로 정의될 수 있다.	통로는 어떤 목표에 이르기까지 따르게 되는 방향이다. 그러나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통로는 나름대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체현되어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통로를 목적지와 원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테두리	테두리(Edge)는 영역을 속에 에워싸고 그 영역에서 밖으로 향하게 된다. 테두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Facade, Parapet, 벽면, 담장 등 건물체계의 격임매에 해당하는 곳이다.	Facade는 도시에 있어서 문과 같은 것이며 보다 큰 영역을 향해서 표정이 풍부하게 되고, 테두리에서 훨씬 먼 밖의 세계를 바라보는 기능을 수행한다.

5. 결론

전술된 바와 같이 장소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건축을 구현하고자 하는 관념적·이론적 형성과정을 갖는다. 이것은 "도시는 주택이고 주택은 도시이다" 라는 수많은 건축가가 언급한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규모는 달리 하더라도 건축을 중심으로 도시에서 실내디자인까지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론의 이념적 체계로서 활용될 수 있는 면모를 지닌다. 디자이너는 기능적·경제적인 건축프로그램의 단계를 거쳐 나름대로의 우선순위(Priority)에 입각한 합리적인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디자인의 결정과정(Design decision)에서 디자인 질에 중요한 시점을 맞게 된다. 요즈음 탈구성·탈중심·불연속·전위·변위·분리·분열·전도·이질·단절·붕괴 등의 디자인 전략을 갖는 解體主義的(Deconstructivism) 경향의 디자인은 건축은 물론 실내

디자인의 상업공간 등에서 효과적이고 감각적인, 참신한 유형의 디자인 기법으로 포스트-모던한 경향과 더불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이 편안하고 안정되며 친숙한 삶의 방식으로서 건축 및 실내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재고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방법론으로 장소론의 고찰은 인간본위의 디자인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장소는 축·방향·경계·중심·폐쇄(위요) 등의 건축의 기본적인 요소를 통해 정위·정체성·독자성·형상성·안전성·위계성이라는 장소의 감각적 구성체계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영역·기념물·결절점·통로·Edge 등의 장소의 기본적인 형성요소를 구현하여, 결국 건축 및 실내디자인에서 낯설지 않고 안전하며 편안한 인간의 거주를 실현하고자 한다.

<표 4> 장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各要素간의 相互關係



참고문헌

1. A.C.Antoniades, POETICS OF ARCHITECTURE, VNR, 1992
2. B.J.Wadsworth, 정태위역, 뼈아제의 인지발달론, 배영사, 1985
3. Charles W.Moore, 광해선역, 주택의 장소성, 국제, 1974
4. Chritian Norberg-Schulz, GENIUS LOCI, New York, Rizzoli, 1980
5. Chritian Norberg-Schulz, ARCHITECTURE: MEANING AND PLACE, New York, Rizzoli, 1988
6. Chritian Norberg-Schulz, 조휘철역, ROOTS OF MODERN ARCHITECTURE, 공간예술사, 1991
7. Chritian Norberg-Schulz, 이일훈역, THE CONCEPT OF DWELLING, 태림문화사, 1991
8. Corwin Benette, 김광문역, 인간을 위한 공간, 기문당, 1977
9. David Canter, 허동국역, 건축심리, 기문당, 1982
10. D.Sack, HUMAN TERRITORIALITY, Cambridge Univ. Press, 1986

11. I.Altman / E.H.Zube, PUBLIC PLACES AND SPACES, Plenum Press, 1989
12. J.Farbstein / M.Kantrowitz, PEOPLE IN PLACES, Prentice Hall Inc., 1978
13. K.C.Bloomer, 이호진역, 신체·지각 그리고 건축, 기문당, 1978
14.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60
15. Kevin Lynch, 조진구역, 지역환경의 설계와 관리, 태림문화사, 1978
16. Kevin Lynch, 양동양역, 공간형태론, 기문당, 1986
17. Merleau Ponty, 오병남역, 현상학과 예술, 서광사, 1985
18. P.V.Mesiss, ELEMENTS OF ARCHITECTUER, VNR, 1986
19. Walter Biemel, 백승균역, 하이데거의 철학이론, 박영사, 1982
20. Yi-Fu Tuan, SPACE AND PLACE, Univ.of Minnesota, 1977
21. 內田祥哉, 윤섭노역, 건축의 환경심리, 국제, 1984
22. 小林重順, 연제진역, 건축심리입문, 산업도서출판, 1982
23. 박이문, 현상학과 분석철학, 일조각, 1985
24. 최정훈, 지각심리학, 을유문화사, 1974

(접수 : 1994. 8. 30)